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MGYNREADING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철학자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어떤 인간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거처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이 실제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쾌락주의 내에서 행복이란 몸에 괴로움이 없고 영혼에 동요도 없는 정적인 상태로 정의된다.

전통적 인식론에 따르면 쾌락은 즐거움을 유발하기에 좋은 것이고 고통은 괴롭기에 나쁜 것인데, 이는 각각 선과 악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반적 생각’에서 출발하여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악이 아님을 보인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믿었던 그는 인간이 영혼과 신체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을 전제하면 영혼은 신체에 퍼져있는 미세한 입자이고, 신체는 그러한 영혼을 담는 물질적 용기이다. 또한 신체와 달리 영혼은 감각 능력이 깃들여 있지만 감각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이루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과정을 구성요소의 분해로 이해한다. 집합체로서 인간이 와해되면 생명 유지와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영혼이 흩어지므로 감각은 없어진다. 따라서 ㉡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쾌락을 더 많이 산출하는 한 그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요컨대 선악 판단은 시간 흐름에 따른 쾌고 간 상호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 감각될 수 없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이처럼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므로 죽음은 살아 있지 않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한편, 인간은 생존해 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을 닦쳤을 때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상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죽음과 삶이 시간적 상호배제 관계에 있다면 죽음은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한다.

그런데 ㉣ 죽음은 살아 있지 않은 상태의 마감이기에 그것을 악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삼수를 몰래 준비하는 수험생이 부모님에게 그러한 사실이 들켜 미래의 삶이 제공할 선의 향유가 박탈된다면 죽음을 악으로 여기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죽음을 삶의 중단으로 바라보는 박탈론자들의 논지이다. 여기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삶의 중단, 즉 박탈이 결핍과 같은 고통과 달리 감각될 수 없다

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필연적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결핍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무언가를 욕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 요구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시간, 다시 말해 미래의 삶이다. 결국 인간은 미래의 삶에 대한 결핍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불가능하기에 고통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 결핍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당장 충족 가능한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먼 미래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고, 통상 가지기 쉽지 않은 욕망이다. 가령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 대상을 소유하기가 어려워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초래하지만 간소한 식사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관점을 주장한 키체드는 인간을 필수적 욕망에 한정시키는 방법으로 ‘쾌락 계산법’을 제안한다.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시점부터 그것을 누린 후까지를 고려하여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가져다주는지 계산하자는 것이다.

1. 에피쿠로스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이 안정해질 때 비로소 죽음이 도래한다.
 - ② 어떤 죽음은 나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③ 영혼은 신체와 달리 물질적 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어떤 것이 좋은 것으로 판별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살아있는 인간이 죽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살아 있지 않은 상태로서의 죽음이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② ㉡은 영혼만으로 감각을 느낄 수 없다는 유물론적 믿음을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을 가리킨다.
 - ③ ㉢은 선을 쾌락으로, 악을 고통으로 규정짓는 일반적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리킨다.
 - ④ ㉣은 ㉡과 ㉢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반면, ㉤은 ㉠에 대한 반박을 가리킨다.
 - ⑤ ㉤은 ㉢이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 중 하나이자 동시에 ㉠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3. 밑글에 제시된 입장들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는 현재 살아있는 인간에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인 죽음이 악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마감시키는 죽음이 선만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악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박탈론자의 에피쿠로스 비판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인간이 죽지 않은 존재가 되어 미래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면 사치스러운 욕망을 지향해도 된다고 키처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박탈론자는 인간의 쾌락과 고통이 주관적이고 정량화하기 어렵고 미래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쾌고가 단순한 숫자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 ⑤ 단순한 생리적 필요나 기본적인 쾌락만으로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이나 장기적 행복감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키처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헤겔에 따르면 '감각'은 외부 자극을 통한 인상이고, '감정'은 인상에 대한 반성이다. 가령 지네를 감각하여 만들어진 인상을 통해 자극을 받은 나는 무규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지네를 대상으로 공포라는 '정서'가 생겨난다. 정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헤겔은 설명한다. 한편 공포와 달리 인지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감정도 있다. 괜히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도 기분이 우울한 날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어떤 물체에 발을 짚어서 고통을 느낄 때를 상상해보자. 그 고통은 특정한 물체에 대한 감각이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인지와 평가도 없다. 요컨대 기분은 대상이 없는데도 자연적 기질에 의한 감정이라면 고통은 대상을 지향하지만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감정이다. 데닛에 따르면 기분이나 고통은 정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감각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감각은 헤겔의 체계 속에서 '서로 대립해 있는 세계의 발견', '주체와 객체의 즉자적 구별' 따위로 설명된다. 즉, 감각이란 대상을 자기 속에서 발견할 때 발생한다. 대상 내부의 특수화된 규정들을 자기내부의 보편성 속에 정립하므로 정작 순수한 감각 단계에서 나와 대상은 구별되지 않는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의식적인 활동은 아니다. 헤겔은 '신체화' 개념을 도입하여 감각 개념을 구체화한다. 신체화는 감각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는 고통처럼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냥감을 사냥하는 동물의 본능은 무의식적 신체화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면서 나는 의식적 감정, 즉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헤겔은 감각과 정서를 엄밀하게 구별하지만 둘 모두 감각이라 부른다. 여기서 정서와 다른 감각이란 외부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의 감정 뿐이다.

(나)

음악이 어떻게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가? 헤겔은 음악이 다른 예술 형식과 달리, 직접적인 언어적 의미 없이도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감정이 단순한 주관적 느낌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정신의 발전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예술작품 속에 내재된 감정이 객관적 진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음악이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환기론과 인지론이 있다. 환기론에 따르면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음악이 인간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환기론자들은 말한다. 반면에 인지론자들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서사 구조를 가지는 교향곡에는 시작, 절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를 듣게되면 표현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헤겔 예술철학에서 음악은 낭만적 예술에 속한다. 고전적 예술과 달리 낭만적 예술은 실재적 개인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주관성을 최고의 원리로 간주한다. 헤겔에 따르면 주관성은 현존을 통해 '자연스런 인격'이 되는데, 유사하게 낭만적 예술이 표현하는 정서적

감정은 음악이나 시, 회화 등의 기호를 통해 전달된다. 먼저 음악은 회화나 시와 마찬가지로 낭만적 예술이지만 회화와 달리 공간을 부정한 예술이다. 회화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 행위와 상황을 묘사한다면 시는 감정 그 자체를 세밀하게 서술한다. 만약 회화가 시의 전략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추상으로의 퇴보일 것이다. 각 장르는 본연의 위치에 걸맞게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감정의 움직임 자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회화가 추구하는 모방과는 구별되면서도 시와 비교한다면 그 표현 방식은 더 추상적인 것이다.

헤겔은 음악을 ㉠ 구성적 측면과 ㉡ 예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음악의 구성적 측면이란 음이 예술을 구성하기 전에 가지는 추동력을 가리킨다. 이 힘으로 인해 청취하는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나와 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음은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상적 내면성으로서 '자아'를 의미한다. 감상자로서의 주체 개념이 사라지므로 동일화된 자아는 음에 대해 전혀 반성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음악이 예술적 국면에 돌입하면 그제서야 청취하는 나와 청취되는 음이 구별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음과 나의 직접적 동일성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아가 갖는 느낌이 자극으로서의 나의 떨림, 즉 비정서적 감정밖에 없지만 이러한 무규정성은 예술로서의 음악에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은 감정과 달리 감각질을 공유하지 않는다.
- ②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절차를 거치면 무규정적 느낌이 생긴다.
- ③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분도 느낄 수 없다.
- ④ 인간과 동물은 모두 신체화를 통해 자기를 의식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토끼와 같은 피식자가 포식자를 보면서 느끼는 본능은 감각에 대한 주체의 반응에 해당한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음이 갖는 힘 때문에 음이 자아와 동일시 된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② ㉡은 음악이 낭만적 예술로서 기능을 하는 순간 음의 무규정성이 사라진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청취하는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에서 음과 직접적으로 동일화된 나는 고통이나 기분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 ⑤ ㉡에서 음을 청취하는 나는 예술로서의 음악에 대해 비판이나 반성을 수행할 수 있다.

6.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입장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키비는 음악적 기호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테두리 이론을 주창했다. 먼저 그는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내는 소리와 음악이 비슷하다고 전제했다. 다음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인간 행위의 시각적 이미지는 음악을 통해 재현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교향곡은 소설과 같은 플롯을 지니는데, 이러한 음악을 낭만적 예술로 볼 수 있는 이유를 행위의 모방에 의거하여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키치는 역설한다.

- 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한 데서 환기론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② 음악이 인간 행위의 재현한다는 특질을 지닌다는 데서 인지론의 주장과 상충하겠군.
- ③ 낭만적 예술에 속하는 음악을 매개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헤겔의 주장과 상충하겠군.
- ④ 음악이 낭만적 예술로 분류되는 이유를 회화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추상으로의 퇴보라고 헤겔은 키비를 비판할 수 있겠군.
- ⑤ 음악을 회화와 동일한 위계로 설정한다면 그 표현 방법이 시보다 구체적이어서 음악 본연의 위치를 잃게 된다고 비판받을 수 있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대인 선생은 삼대 시대가 존귀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학교와 강학 제도’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강(講)·서(序)·학(學)·교(校)의 제도가 잘 갖춰져 덕이 온 나라에 두루 미쳤지만, 후세의 임금들 때에는 이 제도가 무너져 국가가 멸망했다고 보았다. 사람의 타고난 재질은 모두 비슷한데, 가르침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후세 사람들이 삼대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면서도 교육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네모를 그리고자 해 놓고 자와 컴퍼스를 버리는 것과 같다. 비록 내가 지금 관직에 있지 않아 나라에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을 선비들에게만이라도 이 제도를 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제자가 “배우는 방도(學道)가 무엇이나” 하고 묻자, 선생이 답변하시기를 학문을 닦는 까닭은 결국 성인(聖人)에 이르는 길을 배우려 함이다. ㉡ 순임금과 도척(盜跖)은 본성은 같으나 나아가는 길이 다를 뿐이니, 그 차이를 모두 알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해 주겠다. 하늘이 낸 만물 중에 새는 날개로, 짐승은 발굽으로, 물고기는 비늘로, 또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짐승처럼 사는 자도 있다. 모두 하늘이 낸 존재이나, 오직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 가장 고귀해진다. 배움 없는 사람은 짐승이나 오랑캐와 다를 바 없으니, 배움이란 재질(才質)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천지의 이치를 받아 성(性)을 이루고, 기운(氣)을 받아 재능(才)을 갖춘다. 성에는 선악이 없지만, 재능에는 차이가 있어 생지(生知), 학지(學知), 곤지(困知)의 세 단계가 생긴다. 비록 재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배움을 통해 재질을 바꾸면 누구나 요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머리를 곤게 세우고 눈빛을 바르게 하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고, 곤으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럽되 위엄을 갖추는 것은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인은 본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기질을 바꾼 결과이다. 이것이 ‘순임금과 도척은 근원이 같다’고 한 뜻이며, ‘배워서 성인에 이르는 방도’이다.

또 다른 제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性)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묻자, 선생이 이어서 해설하시기를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낳듯, 사람이 태어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본성이 주어진다. 이 본성을 ‘체(體)’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정(情)’이라 하며, 성정(性情)을 다스리는 마음을 ‘심(心)’이라 부른다. 미발(未發)된 상태를 ‘중(中)’이라 하고, 발현된 뒤의 조화를 ‘화(和)’라 한다. 이성(理性)을 믿는 것이 ‘신(信)’이고, 존중하는 것이 ‘경(敬)’,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성(誠)’이다. 상제(上帝)가 내린 충의(衷意)도, 성인이 가르친 도도(道)도, 만물이 본성을 지키려는 것도, 배우고 익히는 것도 모두 이 성정과 경·신·성에 닿아 있다. 배움의 핵심은 ‘성(性)’과 ‘경(敬)’이다. 사람은 태어나 순수하지만, 외물(外物)과 접촉하며 마음이 동요되어 칠정(七情)이 일어나고, 과도한 정욕이 성품을 가리면 탐욕과 혼미로 본디의 밝음을 잃는다. 그러나 천리(天理)는 사라진 적이 없으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뻔해 놀라는 것은 본연의 밝음(本心)이 발현된 것이다. 이 본심을 키우려면,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어 중도를 지키고, 번잡한 욕심을 계속 줄여 욕심 없는 상태에 이르면 지극한 보존 양육(存養)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깨달으며,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힘 쓰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요순 시대 선각자들이 집마다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후진들이 이를 배우며 훌륭한 풍속을 이루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전(經典)의 본뜻을 잃고 겉멋에 치우쳐 주술적 해석과 문자 풀이에만 매달리니, 필자는 이것이 매우 안타깝다. 오늘날 선비들이 과연 ‘배우는 방도’를 아는가? 배워도 그 길을 모르면, 그들이 배우는 것이 무슨 학문인지 알 수 없다. 만약 후진 중 내 가르침을 끝까지 실천할 자가 있다면 성인이 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훌륭한 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방도에 관해 선생에게 묻다 -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삼대 시대의 국력은 훈련과 엄격한 정치 제도 덕분이었다.
- ② 성품에 차이가 없을지라도 배움을 통해 성인에 이를 수 있다.
- ③ 기운을 수양하기 위해 머리를 곤게 세우고 눈빛을 위엄있게 해야 한다.
- ④ 본심은 외부 자극이 닿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고정된 상태이다.
- ⑤ 훌륭한 군자가 되기 위해서 낮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하다.

8. ㉡을 인용한 글쓴이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체·정·심과 같은 추상 개념을 정의하여 성품과 재능이 후천적 기질임을 밝힌다.
- ② 배움의 궁극적 목적이 본성의 해소와 존중임을 강조하여 재질의 변화 필요성을 호소한다.
- ③ 교육 제도의 한계를 고찰하고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깨달아 성인 경지에 이르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 ④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같으므로 배움을 통해 재질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성인의 본질을 환기한다.
- ⑤ 순임금과 도척이 서로 성품은 동일하나 근원이 다른 이유를 외물과 칠정에 가려진 본심으로 설명한다.

6.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문의 핵심이 제도와 수양의 상호 보완에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궁궐 강당에서 과거 제도로 관리를 선발하고, 사학에서는 주자학 경전 강독을 통해 덕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대가 바뀌며 서원 강습과 설문 토론이 학풍을 이끌었고, 근현대에는 학교 정규 교육과 학습 동아리 활동이 병행되어 이론과 실천 양면을 두루 익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고대에는 문헌 탐구와 토의를 통해 본성을 다듬었고, 중세에는 형식화된 의식과 축제를 통해 마음을 수양했으며, 근대 이후에는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실천적 배움이 강조되었습니다.

- ① 교육 제도를 본받으면서도 정작 국가 정치를 배제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점에서는 ㉠와 일치한다.
- ② 동일한 수준의 가르침을 제공받아도 수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인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시대가 변해도 낮에는 배우고 밤에 깨닫는 문화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점에서는 ㉠와 일치한다.
- ④ 경전의 문자를 풀이하러 강독하는 수양 방법이 한 시대의 보편적인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단 혼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모여 토론하고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학풍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달행정이란 국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정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지만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경쟁원리와 함께 전략적 조달을 공공조달의 토대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주체라는 점에서 개인 간의 평등한 관계를 다루는 사법으로 환원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독일을 보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하였으나 예산법에서 경쟁법으로 그 구조를 바꾼 이후 기본권이나 평등같은 공법적 요소를 더욱 헤아릴 수 있는 ‘공법적 합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법적 제약에 관한 논의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법과 달리 기본권의 직접적인 구속력은 사법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본권 규정은 방사 효과를 통해 법 체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적 구속력은 제3자 효과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용자의 여성 근로자 차별에 대해서는 법원이 민법을 해석할 때 평등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사법적 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

절대 왕정 시대에 국가는 통제 불가능한 권력의 전형이었다. 시민은 국가의 저항할 수 없었고, 다만 재산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한편 근대 독일에서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는 한편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라났다. 공법은 권력 작용으로부터, 사법은 계약 당사자의 대등성과 사적 자치로부터 그 기본 골격이 갖춰지기 시작했기에 권력성이 배제되는 작용을 사법의 영역으로 귀속시켜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는 국고로서 사법상 계약 당사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국고 이론이 확립되었다. 국가 자아의 한편에는 권력 주체로서 국가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재산권 주체인 국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국고의 의미는 변색되기 시작했다. 국가 법인격의 단일성 이론과 법치주의 원칙이 자리를 잡으면서 국고 이론은 국가가 공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사법으로의 도피’ 가능성이 문제가 되자, 독일에서는 법이론적 논의를 통해 행정사법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행정사법 이론에 따르면 법적 성격은 사법이지만 공법적 지배를 받는 특유의 법 영역을 행정사법이라 지칭한다. 급부행정과 같이 직접적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다면 사법이 온전히 적용되는 국고행정의 영역에서 분리하자는 것이다. 조달행정의 경우 단순한 국고적 부조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법적 형식의 모든 국고행정을 행정사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공조달계약에 관하여 국가 행정은 마치 사인의 거래 관계와 유사하게 행정 내부 규칙으로 그 방침을 정하면 족하였다. 계약에 따른 분쟁도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는데, 특히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의 권리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는 낙찰 전 계약체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입찰은 청약율, 낙찰은 계약의 성립으로 이해되어 낙찰과 계약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낙찰 실패자의 권리보호 부재로 인해 제삼자가 낙찰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낙찰을 중단시킬 수도 없었다. 입찰자가 할

수 있는 건 낙찰자가 된 것이 아님으로 인한 민사상 신뢰손해 배상 청구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심화되자, 동등대우와 투명성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당위성이 중요시되어 공공조달지침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조달경쟁의 촉진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열린 경쟁을 보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입찰자가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는 고등법원에서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공공조달이 행정 내부 규율인 예산법에 속해있던 시기에는 입찰 절차와 심사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입찰자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보호를 위한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도 주목을 끌었다. 이는 본래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을 규율하던 법이지만 공공조달지침을 독일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법적 규율에서 경쟁법적 해결로 그 구조가 전환된 것이다. 이 법은 조달 주체에 의해 학립된 적합성 기준, 낙찰 기준, 이행 조건 등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여 사업자의 시장 장벽을 높이는 것이 동등대우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쟁제한방지법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단과 목적 간의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준수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투명성과 동등대우는 그 자체로 규범적 힘을 갖는다. 이러한 가치들은 궁극적으로 평등의 원리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10. 윗글에 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익적 목표가 있는 행정 행위는 조달행정에 해당한다.
- ② 공법의 영역에서는 제3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방사 효과는 기본권 규정이 개인 간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④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되면서 공공조달계약은 사법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 ⑤ 19세기 이후 국고 이론의 의미가 퇴색되어 재산권 주체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회사는 열심히 입찰을 준비했지만 낙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낙찰자로 선정된 경쟁사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갑 회사는 심각한 손해만 입게 되었다.

- ① 공공조달지침 채택 전에, 갑회사는 경쟁사로부터 낙찰자의 성명과 청약에 실패한 이유를 제공받지 못했겠군.
- ② 갑 회사가 낙찰 결과 발표 이후, 누가 낙찰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입찰과 낙찰이 동시에 체결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공공조달지침 채택 전에, 갑 회사는 제삼자인 경쟁사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었겠군.
- ④ 공공조달계약을 예산법으로 이해하는 시기에 갑 회사가 그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 중심의 투명성과 동등대우의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겠군.
- ⑤ 낙찰예정자 통보 단계를 도입하여 갑 회사가 낙찰되지 못한 이유와 낙찰자 정보를 받았다면 공정한 경쟁질서 보장이라는 공법적 기능이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겠군.

13. 윗글을 바탕으로 ‘공법적 합의’가 갖는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실천적 원칙으로서 조달행위에 공법적 기속을 부여한다.
- ② 입찰자도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 주체로 설정하여 입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투명한 자료를 제공한다.
- ③ 외형은 민사 계약이지만 공법의 제약을 받는 계약에 관해서는 법치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여 평등과 공정 그리고 투명성의 실현을 지향한다.
- ④ 경쟁은 기본권적 평등과 연결된 질서이며, 조달경쟁의 공정성은 공법의 주요 과제임을 환기한다.
- ⑤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조달 주체의 자의적 행태를 견제하는 공법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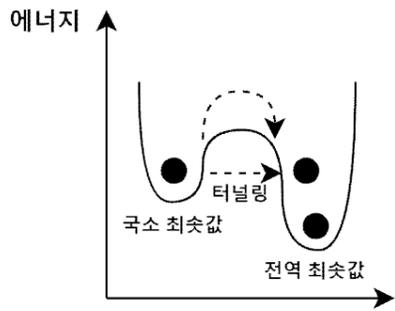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고리즘이 다루는 자료의 크기가 커질수록 계산 시간과 자원 소모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1980년대 물리학자 파인만은 막대한 계산량을 중앙 처리 장치를 이용한 기존의 고전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그는 중첩된 모든 상태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는 기계를 상상했고, 양자계를 모방한 양자 컴퓨터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 처리 기반 방식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병렬 계산 능력이 뛰어나 특정 문제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데, 특히 3차원 이상의 공간을 모델링하는 고해상도 자료를 다룰 때 그 힘을 발휘한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적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자의 성질 중 하나인 중첩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0과 1 중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고전 컴퓨터의 논리회로와 달리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큐비트는 두 상태의 확률이 결합된 형태를 가지므로 이론적으로는 n개의 큐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2ⁿ)이 된다. 한편 서로 떨어져 있는 두 큐비트에 대해 한 큐비트의 상태가 확정되면 다른 큐비트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게 되는데 이는 양자가 가지는 얽힘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서 두 큐비트는 서로 얽혀 있어야 한다.

양자 게이트를 연산의 기본 단위로 쓰는 양자 게이트 컴퓨터는 가장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로 불린다. 양자 게이트가 수행하는 연산은 항상 가역적이고 전체 확률이 보존된다는 특징을 만족한다. 컴퓨터에 입력된 큐비트는 여러 양자 게이트를 거치며 변화를 거듭하고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가 도출된다. 단일 큐비트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 게이트에는 아다마르 게이트와 파울리 게이트가 있다. 아다마르 게이트는 0과 1의 상태를 균등한 중첩 상태로 변환한다. 파울리 게이트는 3차원 좌표계를 구성하는 x, y, z 축에 따라 큐비트의 상태를 뒤집는다. 그 중 파울리-x 게이트는 0을 1로, 1을 0으로 스위치한다. 반면 파울리-y 게이트는 파울리-x 게이트처럼 상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양자 고유의 위상을 회전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한편 파울리-z 게이트는 0이라면 그대로 유지하고 상태가 1인 큐비트에만 위상을 더하는 기능을 하는데, 겉으로는 상태가 변하지 않으나 양자 간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문제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을 최적화라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영역에서는 그것이 최솟값이나 최댓값이 된다. ㉠ 고전적인 알고리즘은 추정한 해가 국소 최솟값 또는 국소 최댓값에 갇히기 쉬운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이상에 가까운 해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한다는 것이 골치아픈 문제이다. ㉡ 양자 어닐러는 양자 컴퓨터의 일종으로, 파동의 특성을 가지는 입자의 이중성으로 인해 입자의 에너지보다 높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용한다. 따라서 양자 어닐러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보이지 않는 더 깊은 해도 확률적으로 뚫고 갈 수 있다. 예컨대 가능한 해의 조합 중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역 최솟값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양자 터널링을 이용해 전역 최솟값에 도달하는 과정을 양자 열화라 부르며 기본적으로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이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를 매우 느리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양자 어닐러는 이 시스템을 쉽게 구현하기 위한 초기값을 설정한 후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제인 아디아바틱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가 바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최적화 문제의 원하는 해인 최솟값을 도출하는 것이 양자 어닐러의 기본 원리이다.

최근에는 지질구조 및 자원 분포 확인을 위한 각종 탐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방법 대비 고해상도 및 고밀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의 3차원 공간구조를 탐사함으로써 얻은 양질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양자 컴퓨터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율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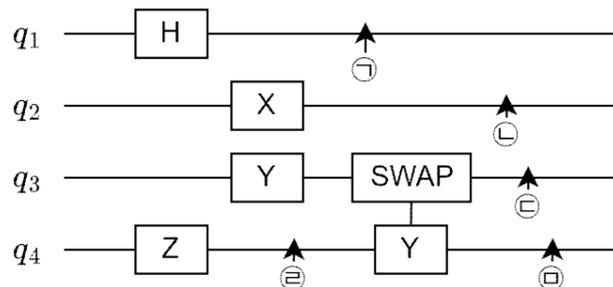
13. 윗글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계산 시간과 자원 소모가 커진다.
- ② 하나의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총 세 가지이다.
- ③ 중첩과 얽힘의 성질에 따라 n번의 관측만으로 2^n 개의 큐비트 상태가 결정된다.
- ④ 파울리-y와 파울리-z 게이트는 모두 양자 간섭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⑤ 양자 열화 시스템의 초기값은 아디아바틱 과정이 끝나야만 구해진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 모식도는 양자 게이트 컴퓨터의 전체 회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H는 아다마르 게이트, X, Y, Z는 각각 파울리-x, 파울리-y, 파울리-z 게이트에 해당한다. SWAP 게이트는 두 큐비트의 상태를 서로 교환하는 게이트이며, 여러 큐비트를 다룰 때 계산 순서를 조정하거나 큐비트의 위치를 재배치할 때 사용된다. ㉠~㉣은 출력된 큐비트 상태를 측정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단, 입력된 큐비트 $q_1 \sim q_4$ 는 초기에 확률 상태 0만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얽힘이 일어나지 않는 한, q_1 의 상태는 ㉠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 ② ㉡에서는 큐비트의 위치가 재조정되지 않은 채 q_2 가 갖는 상태가 0에서 1로 변환되었다.
- ③ q_3 회로의 SWAP 게이트가 q_4 회로의 파울리-y 게이트보다 나중에 작동되었다면 ㉢과 ㉣에서 출력된 상태는 서로 동일하다.
- ④ q_3 회로의 SWAP 게이트가 q_4 회로의 파울리-y 게이트보다 먼저 작동되었다면 ㉢과 ㉣에서 출력된 위상은 서로 동일하다.
- ⑤ 전체 회로에서 두 상태에 대한 중첩을 표현하는 큐비트는 하나 뿐이고, q_4 의 파울리-z 게이트를 통해 ㉣이 내놓는 값은 양자 간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적화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해답을 도출하는 문제로, 목표함수와 제한조건의 성질에 따라 선형 최적화와 비선형 최적화로 나뉜다. 최적화 문제의 해법은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 전역 최솟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비선형 최적화의 경우 목표함수가 복잡한 곡선이기 때문에 연산 과정에서 다수의 국소 최솟값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래 두 그래프에서 (1)은 단순한 직선을, (2)는 복잡한 곡선을 목표함수로 설정하였다.

- ㉠ (1)에서 ㉡를 적용하면, 국소 최솟값이 전역 최솟값에 갇힐 가능성은 없겠군.
- ㉢ (1)에서 전역 최솟값을 찾기 위해서는 선형 최적화보다 ㉣가 더 적합하겠군.
- ㉤ (2)에서 비선형 최적화를 적용하여 찾은 국소 최솟값은 제한조건 내에서 전역 최솟값이 될 수 없겠군.
- ㉦ (2)에서 ㉧를 적용하면 양자 열화 과정에서 국소 최솟값을 찾는 절차는 거치지 않겠군.
- ㉨ (1)과 (2)에서 전역 최댓값을 찾기 위해 ㉩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군.

* 확인 사항
 ○ MGYNREADING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